

오모리 가와시마 가문 주택

에도 시대(1603~1867) 오모리에서 가장 번영했던 무사 가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와시마 가문은 이와미 은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막부의 명을 받고 이와미 지역에 부임한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로부터 직무를 부여받은 가와시마 가문은 1610년부터 1867년 에도 막부의 통치가 종료될 때까지 이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1800년 오모리의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된 직후에 지어진 이 광대한 규모의 저택은 가와시마 가문의 영향력과 부를 잘 보여줍니다. 저택은 창고와 별채의 증축을 거쳐 1825년에 지금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가와시마 가문 저택은 미술품이나 식기, 조리기구와 그 외 다양한 물품들로 장식되어 있어 약 2세기 전 막대한 부를 누린 가문의 생활상을 오늘날에 전해줍니다. 저택의 정면에 서면 두 개의 현관이 보입니다. 좌측에 있는 작은 현관은 거주자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우측의 커다란 현관은 자그마한 정원을 마주한 두 개의 다다미 방으로 연결됩니다. 이 커다란 현관은 부교나 관리, 마치도시요리(주요 도시에서 시중의 공무를 처리하던 관리) 등 중요한 방문객을 맞이할 때만 개방되었습니다. 정원을 마주보고 있는 킷마루에 앉으면 한때 이곳에서 오갔던 진지한 대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듯합니다.